

민주, 이석기 사태·원내전락 놓고 ‘적전분열’?

李제명안 신중론에 일부 “조속처리”

원내외 병행 투쟁도 강경파선 반대

민주당이 ‘이석기 사태’ 후속 조치와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놓고 내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우선 이 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놓고 지도부 내에서 연일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중복세력’과의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면서도 제명안에 대해서 “제명 요건을 헌법개정 요건이랑 같이 맞췄는데, 그만큼 신중하자는 것이 헌법의 요구”라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지난달 27일부터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해운 ‘노숙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김 대표는 천막당사에서 노숙투쟁을 하면서 당 대표로서 외부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지만 9일부터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로 참여해온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가급적 천막당사를 지키기로 한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광장 중심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노숙투쟁을 강조하고 장외투쟁에 대한 무게를 좀 더 싣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은 국정원 개혁에 총력

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와이셔츠 대신에 ‘박스형 티셔츠’를 입고 참석, ‘투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발언에도 한층 결의가 실렸다.

김 대표는 “상황을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면서 전날 4·19 민주묘지를 방문한 사실은 언급, “지금 우리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우고 있고, 뿌리깊은 반(反)민주 세력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치의 미적거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제명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당이 명운을 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국정원 해체는 부분적 무장해체”라며 당 행보에 힘을 줬다.

그는 또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반

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다면 여야를 구분하고 무기명 비밀투표 뒤에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에도 이 의원 사퇴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번 기회에 중복과파세력이 민주당에 있다면 속아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천박한 인식과 철학을 보여주는 한심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와 당직 사퇴를 요구했다.

진 의원은 또 조 최고위원의 6일 발언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중복몰이 정치공세에 부화뇌동하는 것을 넘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 소속 동료 국회의원의 등에 비수를 찌는 노골적

인 해당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십년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 온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함으로써 당 지도부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원내외 병행투쟁을 놓고도 강경파의 갈등이 감지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원내외병행 투쟁 원칙에 따라 급주중 역사 교과서 왜곡 논란(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논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현안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상임위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금은 밖에서 싸워야 할 때”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경파 일각에선 단식 투쟁 도입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날세운 정치판 가을전어 논란

새누리 “며느리도 돌아온다는데... 민주당 복귀해야”

민주당 “야당 대표에게 경박한 희롱조 발언이나” 반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에 ‘가을 전어’ 논란이 일었다.

발단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지도 벌써 한 달 되고도 일주일도 지났다. 흔하디 흔한 가을 전어,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냄새 맡고 돌아온다는 말이 있다”며 “국회에서 전어파티라 도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어가 한창인 초가을을 맞아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간접적으로 압박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 말은 정국의 비랑에서 장외투쟁을 선택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발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윤상현 부대표가 ‘가을 전어’를 들먹거리면서 야당과 야당 대표에게 또다시 경박한 희롱조의 발언을 했다”며 “이것이 여야 관계를 깨자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중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윤상현 부대표의 상스러운 말버릇에 대한 단속부터 먼저 하는 것이 예의고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제철 음식으로 대접받는 전어는 원래 서민들이 즐겨 먹는 생선”이라며 “그만큼 서민들의 애환이 짙게 배어 있는데 윤상현 부대표가 인용한 ‘가을 전어’는 낚시를 해서 배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속설에는 그 옛날 가나도 못 때울 정도로 가난과 궁핍에 찌들었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야 했던 며느리를 애타게 바라본 뉘그러한 시아버지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따라서 장외투쟁을 선택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발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윤상현 부대표가 ‘가을 전어’를 들먹거리면서 야당과 야당 대표에게 또다시 경박한 희롱조의 발언을 했다”며 “이것이 여야 관계를 깨자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새누리-박원순, 무상보육 연일 난타전

지방선거 ‘전초전’ 분석도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박원순 서울시장 간의 논쟁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이 강해 정치권에서는 갈등이 쉬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 정책의 집행을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하면서 촉발된 갈등은 지난주 서울시가 ‘2000억원 지방재정 발행’이라는 대안을 선택하면서 더욱 커졌다.

새누리당은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이 일부러 보육예산을 부족하게 잡아놓고 마치 결단을 내린 것처럼 정치쇼를 펼치고 있다”고 연일 맹비난하고 있고, 박 시장 측은 “무상보육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할 몫”이라며 맞서고 있다.

박 시장은 또 기획재정부 장관·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박 시장이 참여한 공개토론회를 하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에라도 하겠다”고 맞받았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을 괴화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최 대표님하고 저하고 일대일로 ‘짚장도 툴’을 하셔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즉각 반박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보육예산 문제는 박 시장이 다른 시·도와 달리 (부족하게) 보육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석명절 대비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갖고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이 보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마찰로 비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 “민주당 중복세력 숙주” 야 “나치만행 사과 배워라”

양당 거친 설전...정기국회 파행 계속

정기국회가 1주일 넘게 파행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9일 민주당을 사실상 ‘중복세력 숙주’로 지칭했고, 민주당은 과거 ‘나치 만행’에 대해 사과한 독일 총리의 사례까지 빗대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일제히 공세를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훼손세력과 무분별하게 연대해 자유민주주의에 기생한 중복세력의 숙주노릇을 하지 않았는지, 또 지금도 비교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대어 압박·협박 수단 또는 대통령에 대한 협박 도구로 사용한다”며 “국민을 대신해 우선 상임위를 내일부터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제1야당을 중복몰이 대상

으로 언급하는 것은 대화와 상생의 국회를 그만두고 파국을 선언하는 점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특히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켈 총리가 나치 만행을 거듭 사죄하는 이유는 그가 독일의 국가수반이기 때문”이라며 “메르켈 총리는 ‘나는 직접 책임질 일이 없으니 사과할 것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도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야당의 사과요구를 거부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국정원 책임진 위치라면 사과할 수 있다는 예를 든 것뿐이라는 설명이지만, 여권에선 민주당이 고의로 국정원 대선 의혹과 ‘나치 만행’을 사실상 동급에 놓고 비유한 것으로 보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이명박정권 최고 실세로 통했던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새벽 1년2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내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야겠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연광뉴스

채동욱 “유전자 검사 용의” 강경

‘혼외 아들’ 보도한 조선일보에 정보보도 청구도

채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혼외자식 의혹’과 관련해 9일 “오늘 중 정보보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런 시일 내 (조선일보에서) 정보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면서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와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중재부터 제소까지 쭉 이어지는 거다. 정보보도 뿐만 아니라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에서에서 채 총장이 1999년 한 여성과 만나 지

난 2002년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아들이 최근까지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다녔고 지난 8월 말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9일자 후속기사에서 “학교 기록에는 (아들의) 아버지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날 채 총장에 대한 의혹제기와 관련, ‘검찰 흔들기’, ‘공작·음모정치’라고 주장하며 의구심을 보였다. /연광뉴스

2013년 10월 0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메디컬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파격적인 임대료 & 분양가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70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2층 PC방 203P
지상1층 지상1층 후대판매장 22P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